

우리나라 기업의 대베트남 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박광서*

< 목 차 >

I. 연구목적	2. 우리나라의 베트남 투자동향
II. 베트남 시장의 투자환경	IV. 효율적인 베트남 투자전략
1. 베트남 시장 동향	1. 투자애로요인
2. 외국인 투자 정책	2. 투자전략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1. 외국인 투자동향	Abstract

I. 연구목적

베트남 경제가 최근 들어 급성장을 기록하면서 외국인들의 투자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특히 베트남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에 따라서, 세계시장에서 바라보는 베트남시장 자체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WTO가입조건으로 베트남 정부가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약속하면서 외국인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PwC(Price waterhouse Coopers)가 세계의 유망시장 20개국의 투자여건을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이 중국을 제치고 향후 가장 유망한 제조업 투자지로 선정되었고, JETRO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본기업들도 향후 5 내지 10년 동안 베트남을 최고의 생산기지로 평가하고 있다.¹⁾

이와 같이 베트남이 최고의 생산기지로 부상하면서,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도 급증하여 2007년 누계기준으로 1837건, 135억3천만 달러 투자로 대 베트남 투자 1위국에 올라섰다.

* 전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1) The PwC EM20 Index(2007. 7), JETRO 투자여건조사 보고서(2007.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 분석자료 종합

한국의 대 베트남투자의 증가는 한국기업들이 최고의 생산기지로 꼽던 중국이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임금, 환율 등 생산여건이 악화된 데다, 중국정부의 외자기업 우대 정책이 점차 사라지고, 북경 올림픽 이후의 'China Risk'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차세대 생산기지로 베트남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²⁾ 그런데다 저임금, 저물가 등 베트남 시장 자체의 호의적인 조건과 베트남 정부의 개방정책 등의 환경변화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동남아 지역에서는 일본의 영향력이 큰 반면, 베트남은 베트남전쟁에서서의 한국과 역사적인 관계 외에도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인식도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신흥시장의 개척지로서 유력하였던 BRICs에서 물리적 거리감과 환경의 유사성을 감안할 때 브라질보다는 베트남을 포함한 VRICs가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아직도 분명히 사회주의 국가라는 사실과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아직까지는 충분하게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있고, 인프라와 각종 제도의 미비, 만연해 있는 부패 등 기업을 둘러싼 불안한 환경요소가 상존해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물가상승, 국제수지 악화로 인한 IMF 관리체제의 가능성 등 단기간의 높은 경제성장에도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과거 중국투자에 실패한 한국 기업들의 전형적인 유형인 문지마식 투자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충분한 시장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에 대한 개괄적인 투자환경 조사를 통해 베트남 투자에 대한 애로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전략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베트남 시장의 투자 환경

1. 베트남 시장 동향

베트남 통일 이후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시장개방을 기피해 왔던 베트남

2) 김형주, 베트남 투자, 2009년 이후를 주목하라, 경제연구보고서, LG경제연구원, 2008. 1.

은 경제상황이 날로 악화되면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대외교류가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1986년 대외개방정책인 도이 머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베트남 경제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미국과의 무역협정(NTR)이 발효되면서 연 평균 7%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2007년 1월 WTO에 가입한 후, 섬유·신발 등 경공업 중심 수출이 증가하였고, 외국인투자 역시 급증하면서 외국인자본이 베트남 성장을 이끄는 동인이 되고 있다.

베트남 경제는 내수와 수출 부문의 전반적인 호황에 힘입어 제조업이 고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및 산업생산의 중심이 과거에는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이었던 것이 정치적 수도인 하노이, 하이퐁 지역 등 북부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베트남이 안고 있었던 남북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고 있다.

<표 1> 경제사회개발계획(SEDP)의 성과 및 목표

(단위 : %)

구분	항목	2001~05 목표	2001~05 성과	2006~10 목표
경제 지표	GDP 성장률	7.5	7.5	7.5-8.0
	1인당 GDP(달러)	410(2001년)	620(2005년)	1,000(2010년)
	산업구조(GDP 내)			
	-농림수산	20~21	20.5	15~16
	-제조·건설	38~39	41.0	42~43
	-서비스	41~42	38.5	41~42
	수출증가율(연간)	14~16	16.2	14~16
사회개발 지표	고용 창출(백만 명)	7.5	7.5	8.0
	숙련 인력 비율	30	26	40
	빈곤인구	17(2001년)	7(2005년)	15~16(2010년)
	인구증가율	1.2	1.4	1.12
환경 지표	상수도 공급률	60	62	75(농촌)~95(도시)
	산림녹화율	38~39	38(2005년)	43

자료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한국수출입은행, 베트남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6, p.20.

주 : 빈곤인구의 기준은 2005년까지는 월소득 기준 도시지역 약 10달러, 농촌지역 약 6.7달러 기준을 적용했으나, 2006~10년 계획은 이를 국제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도시지역 약 15.3달러, 농촌지역 약 12.3달러의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상기 2005년도 빈곤인구 비율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환산할 경우 26%에 해당됨.

베트남 정부는 체계적인 경제개발을 위해 2006년 사회경제개발계획(SEDP)을 수립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베트남은 2010년까지 1인

당 GDP 1,000달러, 경제성장을 7.5% 이상, 빈곤 인구비율의 감소(15~16%)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베트남의 성장추세는 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신용경색에 의한 경기 침체, 유가상승 등 외부환경의 불확실로 다소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반적인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2. 외국인투자정책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외국자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외국인 자본 및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1987년 12월 외국인투자법을 공포하였고, 1988년 9월에는 외국인투자법 시행령을 공포하였다. 이후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호의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네 차례에 걸쳐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자국 기업들의 보호를 위해 외국인투자법과 내국인투자법을 이원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국내투자자에 비해 외국인투자자가 불리하게 적용을 받아왔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운용이 종국적으로는 베트남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조속한 WTO 가입을 위해서라도 두 가지 법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2006년 7월 국내외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단일투자법을 공포하였다.

단일투자법의 핵심은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과 과거 외국인투자 금지 대상이었던 유통업과 무역업을 심사 후 승인대상으로 하는 등 투자대상 분야를 확대함으로써 외국인자본에 대해 개방의 폭을 넓혔다는 점으로 볼 수 있다.³⁾

<표 2> 베트남의 주요 경제정책 변화추이

연 도	주요 정책 및 조치
1986	-개인기업,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소유권 인정 -생산계획, 자금조달, 제품판매 등 기업의 의사결정권을 개별 사업 단위로 이양 -도이머이 노선 채택

3) 한국수출입은행, 베트남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6, 11, pp.38~40.

1987	-국영기업 개혁에 관한 법령 제정 -검문제 철폐, 제조업체의 해외무역 허용 등 기업의 영업영역 확대 - 외국인투자법 제정
1988	-외환관리법, 수출입·관세법 제정 -국영기업의 정리와 피고용자의 해고 개념 도입 천명 -민간기업에 대한 규모 제한 철폐, 고용의 자유 허용 -은행제도 개혁(국가은행과 상업은행 분리)
1989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국가투자협력위원회(SCCI)설치 -제화와 용역에 대한 시장가격제 확립(3월) -수출가공구 설치 발표 -국영부문의 보조금 완전 철폐
1990	-외국인투자법 1차 개정 -사기업법 제정(2월) -회사법 제정(12월)
1991	-외국인투자 및 기술을 유치하기 위한 수출가공구 설치허용법안 통과 -사회안정화전략 채택(제7차 전당대회) -외환거래소 설립: 호치민(8월), 하노이(11월) -국영기업의 민영화 가능성 제시(12월)
1992	-새로운 수출입 관세법 시행(3월) -시장경제 도입을 명시한 헌법 승인(4월) -외국인투자법 2차 개정(12월)
1993	-토지법 개정(7월) -파산법 시행(7월)
1994	-외환시장 개설(10월) -노동법 제정(11월)
1995	-토지·내수면, 해수면에 대한 임차료 규정 및 시행령 시행(1월) -행정위반 처리 법령(7월)
1996	-민법 시행(7월) -행정위반 처리 시행령(10월) -외국인투자법 3차 개정(12월)
1997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개정(3월)
1998	-국영기업개혁위원회(NERC)설치
2000	-외국인투자법(6월) 및 외국인투자법 시행령(7월) 개정 -호치민 주식거래소 개설
2002	-노동법 개정
2006	-투자법 개정(7월), 기업법 개정(7월)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베트남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6, p.39.

Ⅲ.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투자 실태

1. 외국인투자동향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베트남의 적극적인 개방정책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2003년 외국인투자법 시행령과 노동법 등을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특히 제조업과 유전개발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함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이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2007년만 하더라도 총 160억 달러에 이르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 3>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11월
투자건수	752건	723건	798건	833건	1,283건
투자금액	1,928.5	2,222.15	4,002.7	7,839.0	13,400.2

자료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국별로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한국이 2007년 한해와 누계 기준 모두 1위로 등극했고, 싱가포르와 대만이 그 뒤를 잇고 있다. 2005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누계기준 베트남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대만, 싱가포르에 이어 3위국이었으나, 2006년만 볼 때 2위국과 무려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투자 1위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7년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대형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누계 기준 1위에 올라섰다.

그러나 이는 계약 기준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 투자가 이행된 면에서는 일본, 싱가포르, 대만에 이어 4위에 머물고 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시작된 투자프로젝트가 많다는 점도 있지만, 그만큼 프로젝트 이행률이 낮음으로써 베트남 내에서 투자신뢰도에 부정적인 인식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베트남 기획투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현지 무역관 자료에 의하면 베트남 내 주요 투자국의 투자집행률은 싱가포르 35.4%, 대만 29.3%, 일본 55.2%인데 비해 한

국은 20.2%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표 4> 대 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백만달러)

	2007. 12. 22 현재 누계			2007. 1. 1~12. 22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건수	투자금액
한국	1,837	13,533	2,738	405	4,463
싱가포르	543	10,739	3,804	84	2,614
대만	1,788	10,528	3,079	211	1,735
일본	928	9,038	4,988	154	965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338	7,711	1,376	56	4,268
홍콩	452	5,824	2,161	68	239
미국	375	2,796	752	62	358
네덜란드	84	2,592	2,027	12	155
프랑스	195	2,419	1,137	19	158
말레이시아	246	2,821	1,084	45	1,091
케이만아일랜드	29	1,838	595	6	155
전체합계	8,590	83,104.13	29,236.56	1,445	17,855.90

자료 : Vietnam Economic Times (Jan, 2008)

주 : 2007년 외국인투자액 203억 달러는 신규 외국인투자 178억 6000만 달러에 증액투자를 포함한 금액

2. 우리나라의 베트남 투자 동향

베트남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는 1986년 섬유봉제 임가공형태로 시작되었으나, 공식적인 투자는 1991년 한주통상이 1호로 기록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투자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 1996년에는 8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그러나 1997년 한국 국내적으로는 외환위기, 대외적으로는 베트남의 개방정책 열기의 감소, 대미관계 개선 부진 등으로 베트남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베트남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도 감소세로 반전하였다.

그러나 2000년 들어서서 베트남과 미국 사이에 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베트

남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확산되고, 베트남 경제의 급성장과 베트남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에 따라 베트남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도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07년 12월 계약기준 국별 대 베트남 투자에 있어서 한국은 누계기준 1,837건, 135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1 연도별 투자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는 2000년대 들어서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2006년 이후 베트남 투자국 중 최대투자를 기록하였는데, 2007년에는 전년도 대비 투자건수는 95.6%, 금액은 66.3%가 늘어났다. 건당 평균투자금액도 건설, 플랜트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형프로젝트가 성사되면서 2006년 1,290만달러, 2007년 1,100만달러로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다.

<표 5> 연도별 투자

(단위 건, 백만달러)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건수	149	171	170	190	207	405
자본	269.5	343.6	377.4	551.6	2,683.0	4,463
평균 자본	1.8	2.0	2.2	2.9	12.9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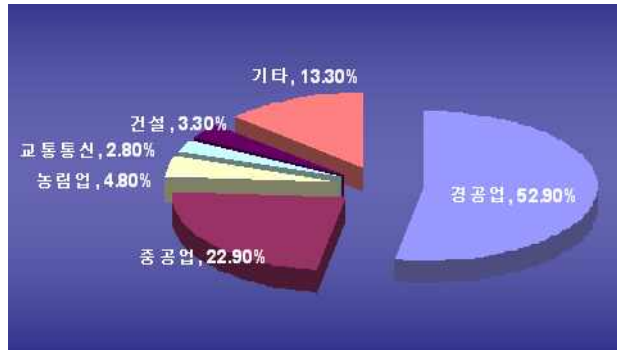
자료 : 베트남 기획투자부

2.2 업종별 투자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 베트남 투자는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적으로 섬유, 의류, 가방, 신발 등 노동집약 분야에서 시작되었고, 투자건수와 액수에서도 노동집약업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누계기준으로 볼 때 제조업이 73%, 서비스업이 25%를 차지하였으나, 2006년 이후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형화되면서 투자업종도 다양화되었다.

(건수기준)



(금액기준)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그림 1>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 업종(1998~2005년 누계)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 베트남 투자는 전통적인 투자형태인 저임금을 활용한 임가공 후 제3국 수출형태의 중소기업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2006년 이후에는 대형 기간산업투자(포스코 11억 2800만 달러, 두산중공업 2억 6000만 달러), ASEAN 생산거점화형 제조업투자(금호타이어 2억 달러), 유통시장(롯데마트 5000만 달러) 등 다양한 업종에서 대형투자가 전개되고 있다.

<표 6> 한국의 대베트남 업종별 투자

(단위 : 백만 달러, %)

산업	누계		2004		2005		2006	
	투자금액	비중	투자금액	비중	투자금액	비중	투자금액	비중
제조업	5,757.5	69.6%	298.0	78.9%	285.8	49.2%	1,848.1	64.3%
석유	84.5	1.0%	-	0.0%	-	0.0%	0.5	0.0%
경공업	2,455.3	29.7%	168.3	44.5%	170.6	29.4%	251.5	8.7%
중공업	2,898.5	35.0%	118.0	31.2%	63.5	10.9%	1,526.8	53.1%
식품	147.0	1.8%	9.8	2.6%	41.5	7.1%	3.2	0.1%
건설	172.1	2.1%	1.9	0.5%	10.2	1.7%	66.2	2.3%
농업·수산업 ·임업	135.9	1.6%	17.1	4.5%	9.7	1.7%	18.4	0.6%
농업·임업	106.1	1.3%	16.3	4.3%	8.7	1.5%	18.4	0.6%
수산업	29.8	0.4%	0.8	0.2%	1.0	0.2%	-	0.0%
서비스업	2,382.0	28.8%	62.8	16.6%	285.4	49.1%	1,008.9	35.1%
수송·통신	283.1	3.4%	6.0	1.6%	4.0	0.7%	3.5	0.1%
호텔·관광	129.2	1.6%	25.4	6.7%	25.5	4.4%	45.8	1.6%
금융·은행	80.0	1.0%	-	0.0%	-	0.0%	-	0.0%
문화·교육· 보건	270.9	3.3%	7.5	2.0%	203.6	35.1%	11.1	0.4%
신도시개발	526.1	6.4%	-	0.0%	-	0.0%	526.1	18.3%
아파트·오피스 건설	796.1	9.6%	20.5	5.4%	41.0	7.1%	311.1	10.8%
산업단지 개발	157.0	1.9%	-	0.0%	-	0.0%	-	0.0%
기타	139.7	1.7%	3.4	0.9%	11.3	1.9%	111.3	3.9%
합계	8,275.4	100.0%	377.9	100.0%	580.8	100.0%	2,875.4	100.0%

자료 : 베트남 기획투자부

특히 최근에는 베트남에서 하노이와 호치민을 중심으로 신도시개발에 따른 부동산 개발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 기획투자부의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7년 8월 사이 한국기업의 부동산 개발투자가 총 86개 프로젝트 금액으로는 50억 달러에 달하였다.

2.3 지역별 투자

우리나라 기업들의 베트남 지역 내 투자는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그동안 호치민, 빈즈엉, 동나이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남부지역은 베트남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호치민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체제였던 영향으로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고, 원부자재의 조달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 등 비즈니스 환경이 유리하며 행정도 북부지역에 비해 편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베트남 정부가 남북지역간의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해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하노이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가 급증하여 2005년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총투자 중 하노이 지역에 대한 투자가 36%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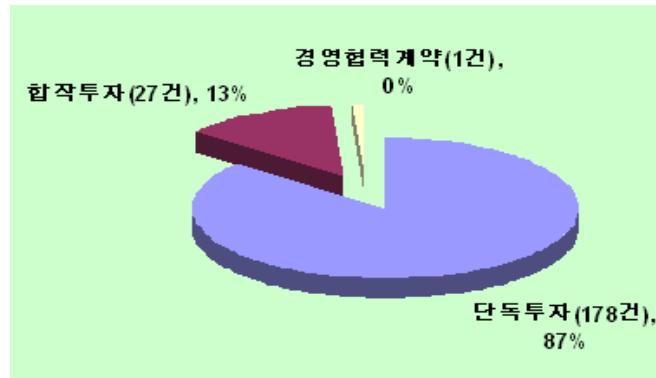
<표 7> 주요지역별 투자현황(1998~2005년 누계)

지역	투자건수	투자금액(백만\$)	실행금액(백만\$)
동나이성	136	1,298	415
호치민시	346	1,053	480
빈즈엉성	199	456	145
하노이시	80	1,054	415
하이퐁시	26	274	274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현지무역관 조사자료

2.4 투자형태

우리나라 기업들은 베트남 투자 시 합작보다는 단독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2005년 한국기업들의 대 베트남 투자 유형을 보면 단독투자가 87%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고, 합작투자는 13%에 불과하였다. 이는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에 따른 경영애로와 갈등, 그리고 중국에서의 합작실패 사례 등의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현지무역관 조사자료

<그림 2> 투자유형(2005년도 건수 기준)

IV. 효율적인 대 베트남 투자전략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투자에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또한 베트남의 향후 투자환경도 긍정적인 요인이 부정적인 요인을 압도하고 있어 향후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베트남 역시 분명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와는 다른 경영환경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베트남에서의 경영애로 요인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투자애로요인

1.1 사회주의 비효율성 및 제도 미비

베트남은 아직까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로 사회주의 이념을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으로 여김으로써 전반적인 경영 의식이 부족하여 신규사업의 추진이 어렵다. 또한 제도나 규정이 미흡하여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결정함으로써 편법이 성행하고 제도변경이 빈번하는 등 공무원들의 권한이 강하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권한을 남용한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하노이 무역관이 베트남에 투자한 202개 한국기업에 대해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90% 이상의 기업이 투자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1.2 열악한 인프라

베트남은 도로, 철도, 항만 시설, 전력 등의 간접자본시설이 부족하여 기업들의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 실제로 운송수단의 미비로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이동에 있어 열차로 2일, 버스로는 4일이 소요되어 물류비용과 운송시간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도로여건의 경우 호치민 등 남부지역은 비교적 양호하나 하이퐁-하노이 구간 등 북부지역은 열악한 상태이며 그나마 도로와 교량이 낡고 좁아 대형화물의 경우 운송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력사정도 좋지 않아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자체 발전기의 설치가 필요하므로 자금이 부족한 기업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1.3 과다한 투자관련 처리 시간 및 비용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이 투자를 하려는 경우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투자허가기간보다 실제로 몇 배의 시간이 걸리고 있다. 또한 투자허가와 그 이후의 토지사용계약, 공장신축허가 등의 업무가 일원화되지 못해 실제로 공장을 가동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인허가 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이러한 인허가 과정에서 특히 관련 공무원들이 부당한 요구와 함께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1.4 고급인력 부족

호치민이나 하노이 등 대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이러한 고급 인력에 대한 임금도 높은 편이다. 특히 고급 기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채용한 후, 자체 교육을 통해 기술인력을 양성해야 하므로 기업에게는 비용과 시간 상 부담을 주고 있다.

1.5 낙후된 부품소재산업

베트남의 주요 산업은 노동집약적인 가공 단순조립산업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부품소재 산업은 발전이 뒤떨어져 있어 대부분의 원부자재는 인근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태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 인근 국가들의 부자재는 가격은 비교적 싼 편이나 품질이 낮아 제품 품질에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원부자재를 운임이나 관세 등을 부담하면서까지 한국이나 대만 등으로부터 수입함으로써 납기와 함께 가격경쟁력의 어려움까지 겪게 된다.

1.6 기술유출

중소기업청이 2008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공동으로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산업보안실태를 조사한 결과, 베트남 진출기업들의 기술유출이 국내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을 유출시킨 관련자들은 대개 현지채용직원이거나 협력업체 관계자로서, 베트남 진출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2. 투자전략

베트남의 투자환경이 아직까지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요인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기업은 다음과 같은 투자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전략

베트남에의 투자 동기는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저임금, 석유 등의 풍부한 자원에 기초한 경제 성장 잠재력에 있으므로, 베트남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익 추구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호보완적인 이익 추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제반 여건이 불리한 중소기업일수록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여 졸속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성급한 투자는 투자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2.2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

외국에 대한 투자 시 실패의 가장 주된 요인은 시장에 대한 분석이 사전에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므로 베트남 투자 시에도 사전에 사업타당성과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베트남의 투자여건은 투자 목적과 투자요소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투자를 결정할 때에는 투자목적에 따라 투자여건과 수익성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특히 베트남은 각종 법규와 규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와 이를 간과하고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면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충분히 사전 사업타당성 조사와 함께, 투자형태나 투자지역, 투자법규, 외국인투자제한분야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KOTRA 등 관계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의 경우 계획보다 투자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투자타당성을 검토할 때 수익성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2.3 투자지역의 다변화와 투자업종의 다양화

우리나라 기업의 베트남 투자는 아직까지 노동집약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지역도 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자칫 우리 기업들 간 현지 거래선 확보, 공장부지 확보, 인력확보 등에서 불필요한 과열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업종의 다양화와 함께 투자지역도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

열악한 인프라는 베트남 정부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투자유치 분야이고, 베트남 국민들에게 훌륭한 기업시민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 교량, 철도, 항만, 발전소와 같은 대형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2.4 투자이행률 제고

한국은 현재 베트남 투자 1위국으로 부상했으나, 이는 계약 기준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 투자가 이행된 면에서는 일본, 싱가포르, 대만에 이어 4위에 머물고 있다. 이는 최근에 시작된 투자프로젝트가 많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만큼 프로젝트 이행률이 낮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실행률이 낮을 경우 한국의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투자를 늘려 나가 신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2.5 신중한 합작 경영

베트남에서의 합작경영은 경영권 마찰, 파트너의 무능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합작의 위험성을 인식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베트남 투자에 있어서 대부분 단독투자를 하고 있으나, 합작을 할 경우에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선정하도록 하고, 경영권 마찰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다수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합작시 현지인 명의의 신탁은 절대 금하도록 해야 한다.

2.6 신중한 입지선정

투자지역을 선정할 때 외국인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인건비 상승, 기술자 구인난 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고, 베트남인 대부분이 거주지 주변근무를 희망하므로 주변지역의 인구구조 및 출퇴근 거리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입지 후보지의 지질상태, 지역별 투자인센티브를 감안하고, 토지사용권을 취득했다라도 추후 문제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주민에 대한 보상문제를 명확히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2.7 현지화 경영

베트남에 진출하는 기업이 직면하는 난제는 베트남의 문화, 사회, 법률 등 제반환경이 본국과는 이질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시장에 맞는 경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경영관리 측면에서는 모든 계약은 문서화하고 특히 중요한 계약은 공증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사 시공 시 철저하게 감리를 해야 한다. 노무관리 측면에서는 베트남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애사심이나 직업의식이 부족하므로 한국관리자가 술선수범하는 것이 필요하고, 베트남 근로자의 근로형태 및 근로문화를 이해하고 노동법을 숙지하여 노사갈등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8 부품업체와의 동반진출

베트남에서는 아직까지 부품소재산업이 낙후되어 있어 원부자재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완제품업체는 부품확보에 따른 물류비용과 품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진출 시 협력업체와의 동반진출을 통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 결 론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서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BRICs를 대체할 수 있는 시장으로 베트남이 매력적인 이머징 마켓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

하면서 베트남시장 자체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WTO가입조건으로 베트남 정부가 이행을 약속한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서 외국인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베트남이 매력적인 생산기지로 부상하는 이유는 그동안 최대 투자대상국이었던 중국시장에서 임금상승 및 최저임금보장 등 노동환경이 투자기업들에게 불리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다가, 중국정부도 외국인투자에 대해 과거와 달리 엄격한 규제를 하면서 전통적인 임가공형 투자의 적격지로서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다 저임금, 저물가 등 베트남 시장 자체의 호의적인 조건과 베트남 정부의 개방정책 등의 환경변화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여 현재 누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제1투자국으로 자리잡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신흥시장의 개척지로서 설정하였던 BRICs에서 물리적 거리감과 환경의 유사성을 감안할 때 브라질보다는 베트남을 포함한 VRICs가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아직도 분명히 사회주의 국가라는 사실과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아직까지는 충분하게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있고, 인프라와 각종 제도의 미비,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열악한 인프라, 과다한 투자관련 처리 시간 및 비용, 고급인력 부족, 부품소재산업의 낙후 등 기업을 둘러싼 불안한 환경요소가 상존해 있다.

따라서 베트남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은 성공적인 경영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전략, 철저한 사전 시장 및 타당성 조사, 투자지역의 다변화와 투자업종의 다양화, 신중한 합작 경영, 신중한 입지선정, 현지화 경영, 부품업체와의 동반진출 등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실태 및 정책적 연구의 틀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으나, 좀 더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해 기업입장에서 좀 더 의미있는 전략적 제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김영웅(2007. 1. 16), “베트남은 기회의 땅”, 경향신문.
2. 김형주(2008), “베트남 투자, 2009년 이후를 주목하라”, 경제연구보고서, LG 경제연구원.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현지무역관 자료.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투자정보, 각년도.
5. 박광서(1998), “대베트남 투자기업의 현지경영사례”, 국제상학 제13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pp.281~301.
6. 박선주(2005), “베트남 투자가이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 박지훈(2002), “계약업체의 베트남 투자환경 분석을 통한 현지화 경영전략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 대학원.
8. 이장로·김용식(1997), “한국기업의 베트남투자 사례연구”, 무역학회지 제22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pp.83~110.
9. 최명동(2006),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베트남 투자전략”, 박사학위논문, 건국대 대학원.
10. 황철근(2006),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대베트남 투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호서대 대학원.
11. 한국경제신문(2008. 2. 11), “베트남도 외국인 투자 가려 받겠다”.
12. 한국수출입은행(2006), “베트남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13. Korea 뉴스(2007. 11. 12), “베트남투자 현황과 문제점”.
14. <http://blog.chosun.com/blog.log.print.screen?blogId=7129&logId=272...>
15. <http://cafe.naver.com/ArticlePrint.nhn>.
16. <http://sangzibeck.com/tt/sangzibeck/1276>
17. <http://www.korcham.net/EconNews/External/CRE06102R.asp?seqno=...>

Abstract

A Study on Investment Strategies of Korean Corporations in Vietnam

Park, Kwang-seo*

Vietnam is gaining much attention as an attractive emerging market that can replace BRICs for the corporations who are destined to always look for a new market in order to secure competitive powers in the global market.

The reason for Vietnam's becoming an attractive place for production is that much uncertainty has been found in China, which has been the traditional country that absorbed the most amount of capital investment. Also, the favorable conditions of Vietnam market itself and the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the open-door policy of Vietnam government attract the investment of Korean companies, and Korea currently holds the most amount of cumulative investments in Vietnam.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member that Vietnam is still a socialist nation, and many required components for corporate activities are not sufficiently provided in Vietnam market. Also, many unstable environmental factors exist such as the lack of infrastructure, the lack of many required institutions, the prevalent corruption, the excessive processing time and cost for adjusting the investment, the lack of advanced work force, and the underdevelopment of part and material industry.

Therefore, those companies who are planning to invest in Vietnam should take a long-term perspective in planning the investment strategies, carry out a detailed market investigation and analysis in advance, diversify the investment areas and investment sectors, carefully make a joint venture and management, carefully determine the factory location, establish a local agency, make co-investments with the part suppliers, etc.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Jeonju University